‘고물가’ 새학기 학부모들 등골 휜다

학생용품·학습자료 등 상승
5년간 평균 사교육비 35%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6.6% ↑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입학과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내 아이의 기를 죽일 수 없다’는 학부모 심리를 자극하는 업체의 마케팅까지 더해져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5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 브랜드의 책가방 세트(백팩, 보조가방 세트)는 평균 20만원 중반대~30만원대에 이른다. 백팩 단품도 15만원 이상 제품들이 수두룩하다.

아동의류는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주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봄 재킷은 20만원대, 팬츠와 티셔츠는 10만~15만원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입학 선물로 꼽히는 노트북과 태블릿 PC는 기본 구성만으로도 100만원이 넘는다.

학부모들은 값비싼 학생 용품 구매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거나 기가 죽을 염려에 고가의 제품이라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연임씨(43·여·서구 풍암동)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아이 입학 준비에만 5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할머니, 외삼촌, 이모 등 가족들이 입학을 축하한다며 책가방과 옷 등을 선물해 줘 그나마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어 “최근 물가가 올라서인지 5년 전 큰 아이가 입학할 때보다 비용이 배는 더 든 것 같다”며 “내 아이가 기 죽는 꼴은 못 보겠어서 부담이 돼도 브랜드 제품으로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최근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4(2020년=100)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3% 각각 상승했다. 학원비 등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12.37로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6.6% 각각 올랐다.

새학기 준비와 교육에 필요한 유아동복(9.6%), 운동화(4.2%), 고등학생 학원비(7.1%), 중학생 학원비(5.7%), 가정학습지(7.1%), 운동·학원비(4.9%) 등의 품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가량 상승했다. 2017년 월평균 27만2,000원에서, 2018년 29만1,000원, 2019년 32만1,000원, 2020년 30만2,000원, 2021년 36만7,000원 등으로 3만원 가량 올랐다. 평균 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는 월평균 4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황진영씨(43)는 “올해 첫째가 중학교 입학하는데 국영수 학원비에 주말 논술까지 매달 사교육비로 130만원을 지출한다”며 “초등학생인 둘째 학원비까지 더하면 새학기가 다가오면 학원비에 입학 준비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봄꽃 출하준비 3월의 첫 휴일이자 광주·전남지역에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5일 광주 북구화훼단지에서 농민들이 프리뮬러 등 봄꽃 출하준비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쓰레기 소각 곳곳서 산불 승용차 추락 일가족 구조

주말 광주·전남 잇단 화재·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 광주·전남 곳곳에서 산불 등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3일 오후 2시 13분께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산 15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주불은 5시간 반만인 당일 오후 7시 50분께 잡혔으나 산 곳곳에 잔불이 번져 4일 오전 11시 5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이 모두 타고 임야 47㏊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근 과수원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오전 9시 16분께 강진군 신정면의 한 해안가 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차량이 절반가량 바닷물에 잠겼을 때 119구조대가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60대 부부와 40대 딸 등 일가족 3명을 모두 구조했다. 구조된 3명은 저체온증 등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지난 4일 오전 11시 47분께에는 광주 북구 오치동 농경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불은 신고 9분 만에 진화됐으나 인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뒤편 깃대봉 중턱에서 불이 났다. 불은 41분 만인 오후 7시 16분께 임야 100㎡(0.01㏊)를 태우고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5일 오전 9시 31분께에는 무안군 삼향읍 한 산자락에서 산불이 났다. 주불은 오전 10시 20분께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근 묘지에서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한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린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첫 공판서 불법 기부 등 인정 안 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사실상 첫 공판으로, 절차 갱신·인정신문·공소사실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공판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8명도 “음식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와 무관하고, 이 군수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혐의와 무관한 수사 내용(식사 접대비 등)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재정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냈다.

검사는 제출한 증거의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공소사실 관련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와 선거운동원들의 다음 재판은 4월 5일 증거 조사를 위주로 열린다. /최환준 기자

화정아이파크 수습지원단 운영 1년 연장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을 전담하는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 운영이 1년 연장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운영이 종료되는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 이 활동을 1년 더 연장한다.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 등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된 수습지원단은 지난해 3월 21일 출범했다. 전면 철거와 재시공이 결정된 화정아이파크 사고 수습 과정에서 민원이나 피해 보상과 관련한 중재, 산업·시민 재해 예방, 해체·재시공 관련 행정 조치 등 업무를 전담한다.

1년짜리 한시 기구로 출범한 사정 때문에 서구는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승인했다.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는 해체 및 안전관리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혜린 기자